



스위스 탐구 생활: 생갈렌(St. Gallen) 사용법.

생갈렌 완전 정복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아는 척하며 생갈렌 여행하기
 아일랜드 수도사에 의해 태어난 스위스 도시
 영혼의 약국에서 감성 폭발하고
 200년 넘은 양조장 맥주에
 송아지 소시지 한 입 베어 물고
 초콜릿으로 입가심하면
 인생샷 남기며 걸어볼 시간
 시장에서 만나는 순수한 생갈렌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일곱 번째로 생갈렌을 소개한다.

생갈렌은 스위스 동북부, 보덴제(Bodensee) 호수와 아펜첼러란트(Appenzellerland) 사이에 있다. 색감이 화려한 돌출 창인 퇴창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도시 생갈렌은 구시가지로는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특별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생갈렌의 수도원 구역(Abbey District)에는 대성당과 도서관이 있다.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며 전 세계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는 생갈렌을 좀 더 매력적으로 탐험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약간의 역사 지식만으로, 풍부한 발견이 가능한 생갈렌

생갈렌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바로크 양식의 대성당이 있는 수도원 구역이다. 이 수도원 구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이 생갈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때는 바야흐로 612년, 아일랜드 수도사 갈루스(Gallus)가 보덴제의 아본(Arbon)에서 여정을 시작해 지금 생갈렌이 자리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다. 오래지 않아 이 은둔지가 수도원으로 확장 되었고, 수도원 주변으로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생갈렌의 기원. 그래서 갈루스 수도사 없이는 생갈렌 도시와 수도원을 논할 수 없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1805년에 문을 닫게 되지만,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정신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3년, 생갈렌 수도원 구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천년이 넘는 수도회 및 문화적 역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특히 이곳에서 간직되고 있는 여러 증언과 주요 문서들은 중세 초기의 역사를 잘 알려주는 것들로, 유럽 전역에서도 가장 진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 영혼의 약국, 수도원 도서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복판에는 생갈렌 수도원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내의 바로크 홀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힌다. 도서관 자체가 진귀한 세계 역사 문화재로, “영혼의 약국”이라는 별명을 지닌 수도원 도서관은 중세 시대의 서적 170,000 권과 필사 원본 2,000 권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3.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수도원 도서관



2019년부터 수도원 구역에 볼거리가 더 추가되었다. 도서관의 지하 금고가 현대 기술로 무장한 인터랙티브한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 전시는 유럽 문화 역사의 지난 1,400년을 보여주는 여정이다. 거기에 최근까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수도원의 825년 사진 원본을 전시한다. 1,000년도 전에 그리드 맵핑을 통해 수도원과 대성당의 도면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더 놀라운 것은 해당 도면과 지도가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직접 그린 것이라는 것이다.

4. 생갈렌의 맥주 문화

생갈렌의 문화는 천년 넘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 도시 개발 등에 있어서 다채로운 문화 유산이 존재한다. 그 유산에는 맥주도 포함된다. 생갈렌 수도원 도서관 문헌에 등장하는 세 곳의 가장 오래된 양조장을 수도원 도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지금도 유명한 생갈렌 맥주를 양조하는 쉬첸가르텐(Schützengarten)은 1779년에 세워진 곳으로, 스위스에서도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다. 이들은 초기에 설립되었던 장소에서, 현대 설비를 갖추고 지금까지도 성공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체제로 훌륭한 맥주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 양조장에 들르면, 스위스 최초의 맥주병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다. 생갈렌의 슈퍼마켓이나 바, 레스토랑에서 쉬첸가르텐 맥주를 쉽게 맛볼 수 있다.

5. 맥주 안주엔, 역시 소시지

생갈렌 사람들이 맥주 한잔을 할 때 꼭 곁들이는 안주가 있다. 바로 화이트 소시지다. 독어권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큼직한 소시지, 브라트부어스트 중에서도 생갈렌의 소시지는 스위스 전역에서 특별히 맛있기로 손꼽힌다.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껍질이 인상적인 생갈렌 소시지는 품질 좋은 송아지 고기와 매력적인 향신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1438년부터 처음 개발이 된 이후, 생갈렌 전역의 소세지 생산공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통 레시피를 이어 만들고 있다. 정통 브라트부어스트는 110g이 정량 무게로, 생갈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시지는 슈미트(Schmid), 겐펠리(Gemperli), 리트만(Rietmann) 정육점에서 생산된 것이다. 생갈렌 곳곳의 노점상과 레스토랑에서 이들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6. 최고의 디저트, 초콜릿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초콜릿이 11kg이 넘는 나라,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의 유명한 초콜릿 회사, 마에스트라니(Maestrani)는 아퀼리노 마에스트라니(Aquilino Maestrani)가 1852년에 세운 초콜릿 회사로, 현재까지 스위스를 대표하는 초콜릿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생갈렌 근교, 플라빌(Flawil)에는 마에스트라니의 초콜릿 공장, 쇼콜라리움(Chocolarium)이 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초콜릿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또 직접 초콜릿 생산 과정에 참관하거나, 하트나 토끼 등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만의 초콜릿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물론 마음껏 초콜릿 시식도 할 수 있고, 초콜릿 쇼핑도 가능하다. 초콜릿 공장에서는 매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초콜릿 풍뉘나, 초콜릿 와플, 핫초코, 샌드위치 등을 맛볼 수 있는 초콜릿 카페도 입점해 있다.

7. 걸으며 인생샷 한 장

비교적 작고 아담한 도시 생갈렌에서는 자연에서의 즐거움 역시 쉽게 맛볼 수 있다. 세 개의 인공 연못을 뜻하는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에서다. 직물 표백 산업과 소방차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610년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으로, 지금은 야외 수영장과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덕에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곳이다. 여름에는 수영과 피크닉을,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다. '드라이 바이에렌'에서는 또한 보덴제(Bodensee) 호수와 생갈렌 구시가지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도원 대성당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외 수영장 중 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이 곳까지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뮈렉반(Mühleggbahn)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다. 수도원 구역 바로 뒤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면 구시가지 위에 있는 생



게오르겐(St Georgen) 구역에 도달하는데, 5 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언덕 위 케이블카 역 바로 옆에 '드라이 바이에렌'을 지나는 파노라마 트레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이 길을 따라 세 번째 연못에 도착하면 드라이린덴(Dreilinden) 레스토랑에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

8. 생갈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장터

매주 금요일, 바디안(Vadian) 동상 주변에 장터가 열린다. 이 장터는 주변 농부들이 직접 생산품을 들고나와 판매하는 곳으로, 작거래가 아닌 중간 상인은 판매 권리가 없는 장터라 지역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